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들, 새만금 방문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5일,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새만금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육상태양광 부지를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단은 공사 새만금홀에서 새만금사업 추진현황과 투자 여건,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육상태양광 발전 부지로 이동하여 현장 설명과 함께 시찰을 진행했다. 새만금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인프라인 육상태양광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새만금이 보유한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기반과 개발 잠재력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체계적인 개발계획,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방문이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세계로봇대회 한국대회 출전권 따냈다

장수 수남초 seedream 로봇팀, 2025~2026 FLL 코리아 대회 '뛰어난 전략가' 상

학교 seedream 로봇팀이 2025~2026 퍼스트 레고 리그 (FIRST LEGO League, 이하 FLL) 코리아 대회에서 본상인 '뛰어난 전략가' 상을 수상하며 세계로봇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수남초 seedream 로봇팀은 지난 1월 29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퍼스트 레고 리그 코리아 대회에서 프로젝트, 로봇 퍼포먼스, 로봇 디자인 등 전 부문에 걸쳐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약 100개 팀이 참가해 주어진 미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로봇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협업 역량을 겨뤘다. 수남초 seedream 팀은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 대표로 세계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박성욱 수남초등학교 교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큰 성장을 보여줬다"며 "AI트릭스물과 전북대학교 운영을 통해 길러온 미래역량이 이번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넘어 아이들이 협력과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키웠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세계대회에서도 그동안의 배움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영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남초



학생들이 보여준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도전 정신은 장수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퍼스트 레고 리그는 미국 퍼스트(FIRST) 재단과 덴마크 레고 에듀케이션(LEGO Education)이 1998년부터 공동 개최해 온 세계적인 청소년 로봇 챌린지로, 매년 110여 개 국가에서 약 68만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대회는 2010년부터 개최돼 과학·공학 분야 진로 교육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익산서 유도 국대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주역들이 익산에서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익산시는 '유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지난 1월 25일부터 익산산실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동계 전지훈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유도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익산에서 열리고 있으며 국가대표 후보선수단과 전국 실업·대학팀 선수 등 600여 명의 유도인이 모인 대규모 합동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김현태 전임감독을 포함한 지도자 8명과 전국에서 선발된 유망주 56명 등 총 6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기술과 체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와 용인시청, 인천시청 등 국내 최정상급 실업·대학팀을 포함한 전국 40여 개 유도팀, 55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훈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기술 연마를 넘어 전국 유도인 간 교류의 장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규모 전지훈련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익산에 머물며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15년째 이어진 정읍 사랑... 삼오, 장학금 기탁

(유)삼오(대표 최준삼 사진)가 지난 3일 정읍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정읍시인장학재단에 기탁하며 15년째 변함없는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

(유)삼오는 가드레일과 안전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제조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지난 2012년 첫 장학금 기탁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총 19회에 걸쳐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번 기탁으로 (유)삼오의 정읍시인장학재단 누적 기탁액은 2000만원을 기록했다.

최준삼 대표는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받은 관심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는 최준삼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는 소중한 정성이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꿈을 키우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보훈회관, 지역 보훈단체 견학 등 활용도 '주목'

6개 시·군 보훈단체, 사업 설명회 열어

고창군보훈회관이 지역 보훈단체의 견학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서부지역 6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보훈단체 회원 60여명이 고창군보훈회관을 찾아 선진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보훈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서부보훈지청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훈보훈정책 등이 다뤄졌으며, 고창군 보훈회관 개청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국가유공자 추가발굴에 대한 질의사항이 진행됐다.

앞서 고창군보훈회관은 작년 12월 개관 이후 보훈단체의 소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쾌적한 시설과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는 등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다목적실은 보훈단체는 물론 군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보훈회관 개관을 계기로 보훈단체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훈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은행,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전북은행이 5일 정읍시청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16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중구 전북은행 부행장, 김대식 정읍지점장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1,5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덕과면, 취약계층 대상 무료 세탁 지원 추진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지역 독거노인, 홀몸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14세 대를 대상으로 무료 세탁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사용으로 오염된 이불을 세탁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구, 저소득 가정 등이 대상으로, 1인 가구 소통행정 과정에서 생활 실태를 살펴 파악한 가구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월탁동에 소재한 '이코온동화이발발매방'과 협약을 맺고 추진해,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를 두었다.

박종만 덕과면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후학 양성 위해 써주세요"

박민철 원광의대 명예교수
전북대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에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박민철 원광의대 명예교수이자 신세계효병원 원장이 병원 발전후원회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원장은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후학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의학 발전과 훌륭한 의사 양성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전북대병원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해당 기부금을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환경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민철 원장은 현재 원광의대 정신과학교실 명예교수이자 신세계효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의학 발전에 힘쓰고 있다.

원광의대 학장과 원광대병원 제2부속병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과 전북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등을 맡아 국내 정신의학 발전과 지역 정신보건 체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전북대병원 박종일 교수의 부친으로, 부자가 함께 전북지역 의학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뜻깊은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자의 뜻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에 책임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 실시

진안군은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상전면 3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6년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진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형 X-ray 촬영과 객담검사, 결핵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협력해 실시되며,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질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역력이 저하돼 결핵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문민수 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 만큼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검진을 지속 실시해 결핵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신마트타운 대표, 설 맞아 금동에 물품 나눔

남원시 금동(동장 김봉래) 관계자는 관내 신마트타운 김한제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을 위해 지난 4일, 화장지 30개와 라면 25박스, 김 1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한제 대표는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봉래 금동장은 신마트타운에 감사사를 전하며, "기탁된 물품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인곤 부자, 아영면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 아영면 관계자는 관내 거주하는 김인곤·김동현 부자(父子)는 지역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으로, 지난 4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김인곤 씨는 평소 이웃사랑 실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김동현 아영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관심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해주신 성금은 아영면민들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영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복지하브와 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면 맞춤형복지팀(020-400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전 조합원 대상 떡국떡 선물 전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쌀 소비축진을 위해 전 조합원 7,200여명을 대상으로 떡국떡 선물세트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심전심 운동의 일환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농협은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한 영농자재교관권 지급, 배추 육묘 지원사업, 농약 및 자재 구입대금 일부 할인 등으로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기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남원 쌀 소비 확대 운동과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구면, 장수어르신 생신축하 지원 추진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수연 이하 협의체)가 2026년도 사업으로 첫 번째 '장수어르신 생신축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된 첫 번째 축하는 3명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대상자 중 92세 어르신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 꽃과 케이크로 찾아와주니 마음이 참 기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